초속 50m… 더 강해진 태풍 '링링'

7일 새벽 제주 서쪽 통과… 폭우 동반 큰 피해 우려
경로 2010년 내습 '곤파스'와 유사… 거리는 더 근접

제13호 태풍 '링링'이 7일 새벽 제주 서부지역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를 지날때 최대순간풍속 초속 40~5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고, 최대 300㎜ 이상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링링은 이날 오후 3시 현재 일본 오키나와 서남서쪽 약 320㎞ 부근 해상에서 시속 19㎞의 속도로 북진하고 있다. 중심기압 940hPa, 최대풍속 초속 47m, 강풍반경 370㎞의 강도 '매우 강'의 중형급 태풍이다.

태풍 링링은 이후 7일 오전 3시 서귀포 서남서쪽 약 150㎞ 부근 해상까지 진출하는데, 중심기압 955hPa, 최대풍속 초속 40m, 강풍반경 410㎞로 강도 '강'의 중형급 세력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어 제주 서부지역을 통과, 7일 오후 3시 군산을 통해 한반도에 상륙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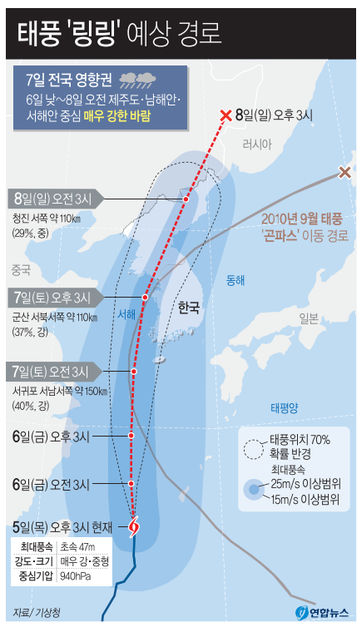
이로 인해 제주에는 6일부터 7일 사이 시간당 30㎜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100~200㎜, 산지의 경우는 300㎜ 이상의 폭우가 예상됐다. 강풍 역시 굵은 나뭇가지가 꺾어지는 수준인 최대순간풍속 초속 40~50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으며, 해상에도 4~9m에 달하는 매우 높은 파도가 일면서 해안가 침수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기상청은 6일 오전을 기해 제주도남쪽먼바다에 태풍 예비특보를 발표했으며, 같은날 오후에는 제주도 육상까지 특보를 확대한 상황이다.

태풍 링링과 유사한 경로로 이동한 태풍은 2010년 9월 1~2일 강타한 '곤파스'가 있다. 당시 서쪽으로 떨어진 상태로 제주를 지나쳤음에도 고산에 최대순간풍속 초속 28.7m의 강한 바람이 불었고, 산지에는 250㎜에 이르는 폭우가 쏟아졌다.

기상청 관계자는 "태풍 링링은 곤파스 때보다 더 제주와 인접해 이동하고 더 많은 강우량과 강풍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이틀새 교통사고로 2명 숨져

제주에서 이틀 새 교통사고로 2명이 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A(63)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21분쯤 제주시 아라동 애조로 달무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차를 몰다 B(55·여)씨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고 직후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B씨는 일행 1명과 함께 마라톤 연습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4일 오후 5시25분쯤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에서는 1t 트럭과 SUV 차량이 추돌했다. 이 사고로 1t 트럭 운전자 C(59·광주)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트럭 동승자와 SUV 차량에 타고 있던 3명은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심한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운전자 및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4만명분 대마초 밀수 남아공인 징역 6년

"제주공항, 인천·김해보다 허술할 것으로 생각" 진술

4만명이 동시에 흡입할 수 있는 대마초를 제주에 밀반입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아공인 R(4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R씨는 지난 2일 비닐 포장된 대마초 19.84㎏이 담겨진 여행용 가방을 휴대하고 남아공에서 홍콩을 거쳐 제주국제공항에 입국했다. 이 과정에서 제주세관에 적발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대마초 20㎏은 시가 20억원 상당으로 4만명이 동시에 흡입할 수 있는 분량이며, 제주공항을 통해 밀반입된 대마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2018년 한해 동안 전국적으로 적발된 밀반입 대마초 규모도 30.9㎏다.

R씨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시에서 나이지리아 마약조직으로부터 2000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를 밀수 대상지로 선택한 이유는 인천이나 김해공항보다 보안이 허술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송은범기자

각급학교 오늘 수업 단축

제주 각급 학교들이 태풍이 북상하는 6일 오전수업만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제13호 태풍 '링링'이 북상함에 6일 각급 학교에서는 오전수업과 급식제공 후 오후 1시 이내로 반드시 모든 학생을 귀가조치토록 안내했다고 5일 밝혔다.

각급 학교는 6일 학생들의 안전과 학교 시설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학교장 판단 하에 오후 1시 이내 하교, 점심 급식 실시로 하교시간을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6~7일 중 도교육청 및 산하 각급기관(학교)에서 주관·추진하는 학생 대상 행사는 취소 또는 연기하고, 방과후교실과 돌봄교실 운영은 취소하되 재난매뉴얼에 따라 안전이 확보되면 돌봄교실은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표성준기자

태풍 온다… 어선 피항 제13호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중인 5일 서귀포시 성산항에는 수많은 어선들이 피항했다. 이상국수습기자

음식점 화재… 936만원 피해

4일 오후 10시쯤 서귀포시 서홍동 소재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 날 불은 식당 내부 31㎡와 가전제품 등을 태우고 30분만에 꺼졌다.

화재 당시 음식점이 문을 닫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936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1층 음식점 냉장고 위치 부근에서 원인 미상으로 발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미숙기자

도, 다중이용 클럽·유흥업소 18곳 점검해보니…

건축·소방 무단증축 구조변경 19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중이 출입하는 클럽과 유흥업소 등의 시설물에 대해 행정시와 소방서 합동으로 불법시설물 무단 설치여부 등을 특별점검한 결과 1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광주광역시 도심의 한 클럽에서 복층구조물이 붕괴되면서 2명이 사망하고 25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휴가 및 추석연휴 기간에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지난 8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 실시됐다.

점검대상은 연면적 500㎡이상 다중이용시설로 나이트클럽, 유흥, 단란업소 등 18개소이며 건축·위생·소방분야에 걸쳐 전반적인 지도점검이 이뤄졌다.

점검결과 10개소 사업장에서 건축분야의 무단증축 및 용도변경 7건, 소방분야의 무단 내부구조 변경 7건, 위생분야의 영업장 무단증설 5건 등 19건에 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며 개선될 때까지 집중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또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불이행시에는 관련법에 의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사법조치도 있게 된다.

더불어 행정시는 오는 10월 31일까지 관광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51개소에 대해 불법증축 및 주요구조부 구조변경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조상윤기자

도내 8개 식품업체 관련법 위반 들통

추석을 앞두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1~27일 전국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3842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총 17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제주에서는 8개 업체가 적발됐는데 제주시에서는 반찬가게 3곳, 서귀포시에서는 떡, 두부 제조업체 등 3곳이다.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4건, 시설기준 위반 2건, 원료·생산·판매기록 미작성 1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건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에게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이뤄지며 3개월 이내에 재점검도 이뤄진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들이 제수·선물용 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면 1399 혹은 110으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은범기자

차량 3중 추돌…7명 부상

4일 오후 7시18분쯤 서귀포시 중문동 산록도로에서 차량 3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7명이 부상했다.

서귀포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사고로 트럭 운전자 A(63)씨가 중상을 입고, 승용차 운전자 B(29)씨 등 6명이 경상을 입어 119구급대에 의해 의료기관으로 분산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전세 렌터카
2018. 12. 17. 제23회 소비자의날 대한민국 소비자만족도 평가 대상 수상
4년동안 타던 차를 반납하면
전세보증금처럼 새차 탈때 낸 금액을 100% 돌려 받는 새로운 렌터카 서비스
당신의 자산과 가치를 지켜주는 카테크의 시작 전세렌터카로 갈아타세요!
차고지증명제가 필요없습니다
똑같은 자동차 타는 방식으로 자산을 지키자!!
개인, 법인 사업자 경비 처리됨
매월 관리비와 기름값으로 풀옵션 차량을 탈 수 있다.
주행거리 제한 없는 상품
우리가족 누구나 운전이 가능하다. 고객의 신용상태 상관없이 이용가능
무료정비서비스는 S정비업체 사고처리는 S화재
4년마다 원하는 신모델 차량을 순환으로 탈 수 있다.
4년 뒤 보증금 100% 환불
이젠 자동차는 소유가 아니라
편리하고 경제적인 사용의 개념으로 보셔야 할때.
내가 원하는 국내, 수입차 전차종 가능....
세금 부담
정비 부담
보험 부담
주행거리 제한
S보험사
정비
안전성
보험
S정비업체
자금보증
국내최초 전세렌터카 | 원카
WONCAR
CTS매니저 박종욱
010-9104-4742

그랜드 보청기
한가위대특전
방문고객 배터리 25,000원→15,000원
삼촌들 혼저 전화 주십서! 기다렴수다!
제주도내 보청기 파격할인!!
타사 보청기 보상판매 서비스
무료 청력검사 및 방문서비스
고급 보청기 1+1(하나더드림 행사)
모든 보청기 A/S 및 무료점검 서비스
70세 이상 어르신 보청기 지원금
청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 그랜드보청기
네이버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서사라사거리 동쪽 100m 행복빵집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제주센터
와이덱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소리왜곡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덱스 제품
왜! 와이덱스 보청기 일까요?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심의번호 2018-GN1-11-0011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판매원 :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청
제주대
와이덱스 보청기
CGV
화북
광양 사거리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방 수
- 폴리우레아방수 -
◆ 지붕, 옥상 방수 및 도장공사
◆ 축사, 냉동창고, 양식장, 수영장 방수
◆ 저수조, 하수처리장 내·외벽 방수
◆ 물탱크, 원유저장탱크, 주유소 바닥 코팅
◆ 수도관, 가스관 등 각종 강관 코팅
◆ 철재 부식 코팅, 아파트 주차장 바닥
◆ 산업용시설물, 발전소, 학교, 관공서 옥상
◆ 구조물의 모든 부위 방수, 콘크리트 부식 방지
◆ SMC, FRP 물탱크 제작, 수리
A/S기간 : 3년 보장
주식회사 내쇼날건업
내쇼날FRP페인트총판
- 방수, 도장 전문건설업, 여성기업 -
TEL : 064-727-9800 H.P : 010-3699-4850
FAX : 064-753-8850 010-3211-0218
national90@naver.com